

제362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8년7월27일(금)

장 소 여성가족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 가. 여성가족부 소관
- 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관
- 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소관
- 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소관
- 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관
- 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관

상정된 안건

1. 업무현황보고 1
 - 가. 여성가족부 소관
 - 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관
 - 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소관
 - 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소관
 - 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관
 - 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관

(09시03분 개의)

○위원장 전해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10시에 고 노회찬 의원님의 영결식이 국회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 질의하시다가 중간에 영결식 참석을 위해서 9시 50분에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30분에 속개

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업무현황보고

- 가. 여성가족부 소관
- 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관
- 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소관
- 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소관
- 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관
- 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관

○위원장 전해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부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현황보고는 먼저 여성가족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공공기관은 기관의 대표

께서 인사를 하시되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입니다.

존경하는 전해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실질적인 성평등사회 실현과 여성, 청소년,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여성가족부는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을 보다 발전시켜 일상에서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여성가족부 간부와 소속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입니다.

윤효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기순 청소년가족정책실장입니다.

이건정 여성정책국장입니다.

최창행 권익증진국장입니다.

김중열 대변인입니다.

최성지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정심 가족정책관입니다.

다음에 소속기관장으로는 나운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이광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입니다.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입니다.

변혜정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입니다.

(간부 및 소속기관장 인사)

지금부터 준비된 자료로 주요업무 및 현안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및 현안보고 순입니다.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첫째, 일상 속 성차별 구조와 문화 개선입니다.

양성평등위원회를 내실화하여 양성평등정책 조정·이행점검을 강화하고 지역 차원의 성평등 정

책 전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성평등 정책에 대한 부처별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생활밀착형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관계부처에 정책 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20대, 30대가 함께하는 성평등 드리머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남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성평등 보이스를 확대하고 문화·예술·교육 분야 성평등 체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중·고교생 대상 양성평등교육을 강화하고 혐오표현 등 일상 속 성차별적 언어표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자체와 협업으로 여성친화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범 추진하여 양성평등문화를 확산시켜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을 위해 사례관리형 경력이음 서비스도 개발·운영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고부가가치 직종 훈련을 확대하고 취업자에게는 경력단절예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하여 협동조합 설립 등 사회적경제 분야 창업도 지원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채용 성차별 해소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성평등 임금실천 가이드라인 보급과 성평등 기업문화를 확산시켜겠습니다. 가족친화인증기업 내실화 등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의 성과가 민간기업과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여성폭력 예방과 대응력 강화입니다.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피해자에 대한 윈스톱 서비스를 내실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엄정한 사건처리기준 마련 등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실태과약을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

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추진점검단을 운영하여 관련대책 이행 점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젠더폭력방지기본법 마련과 국가행동계획 수립으로 여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중장기 추진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을 확충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진료비용 지급절차 개선 등 건강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유회복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지원시설 컨설팅으로 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공공부문 여성폭력 예방교육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민관이 협업하여 여성폭력 근절 캠페인과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경찰청과 협업하여 랜덤채팅앱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매수 유인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등을 신규로 지정하여 피해자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소 발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하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생활안정 지원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셋째,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 가겠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을 고려하여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고 위기가족 조기 발견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아파트, 작은 도서관, 주민센터 등 지역사회 공동체를 활용한 공동육아나눔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맞벌이, 한부모 등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비율과 정부 지원시간을 확대하였습니다. 돌봄수당 인상 등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25쪽입니다.

미혼모, 미혼부 등 한부모자녀 양육비를 확대하고 자녀 대학특별전형 등 비급여성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한부모 당사자가 주도하는 스스로 돕는 한부모 프로젝트를 시범 추진하여 초기 상담부터 자립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해 소득·재산 조사절차를 간소화하였고 자발적 양육비 이행을 위한 매뉴얼 등을 개발·보급할 계획입니다. 한부모가족의 날 제정 등으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도 높이겠습니다.

27쪽입니다.

결혼이민예정자 대상 현지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폭력피해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쉼터 확대 등 인권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과 자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문화 이해교육 등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넷째, 청소년 역량강화와 균형 있는 성장입니다.

환경변화에 맞는 청소년 활동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 주도의 체험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청소년 교류를 다각화하고 2023 세계챔버리 개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성공적 개최를 준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문직업훈련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내일이름학교 운영을 개선하고 특기훈련을 마친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청소년들의 근로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원하는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를 확대 운영하고 최저임금 준수 등 근로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가출, 자살 등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 및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거리상담 전문요원 스트리트 워커(Street-Worker)도 확충하였습니다. 후기청소년 등에 대한 주거지원과 자립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고 인터넷, 스마트폰 의존이 높은 청소년에 대한 치유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인터넷상 청소년 유해정

보에 대한 점검과 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청소년 참여기구 구성을 다양화하고 주도적 참여를 활성화하여 민주시민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청소년 양성평등 의식 함양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여성청소년이 어려움이 없이 위생용품 지원받도록 건강지원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먼저 성희롱·성폭력 방지대책 추진 상황입니다.

그간 미투운동에서 비롯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범정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2차 피해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 각 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 파악을 위해 특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심리치료와 무료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수사과정에서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극 적용하고 성폭력 수사 매뉴얼도 개정하였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함께 처벌수준을 높였으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관리를 강화하고 인식 개선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를 여가부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운영하면서 이행상황을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다음은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추진 상황입니다.

최근 불법촬영 근절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디지털성범죄 근절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현황으로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불법 촬영물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대응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실시간 차단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신속한 수사·처벌을 위해 경찰청과 협업하여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신설하였고 피해가 막중한

경우에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등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상담, 삭제 및 수사 지원, 법률·의료 지원 등 피해자 종합지원을 위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성범죄 민관협의체를 통해서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전해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차별 없는 나라, 공정한 나라의 완성은 성평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일상 속의 성평등 실현과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여성가족부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정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해숙 정현백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기관장께서 인사만 하시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은 공석입니다.

먼저 나윤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나윤경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25일 날 취임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나윤경이라고 합니다.

지난 15년간 저희 기관이 이룩해 온 성인지교육 대상자들의 확대된 수와 또 성인지 예방교육을 실시한 강사들의 양적 확대를 기반으로 저는 대상별 교육에 대한 맥락화·표준화 작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대통령님의 국정과제 66번은 물론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선언하신 대통령님의 그 의지를 받들어 성폭력 교육의 질적 내실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해숙 나윤경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이광호** 지난 7월 9일부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으로 일하게 된 이광호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성가족위원회 전해숙 위원장님과 간사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28년 동안에 연구하고 참여했던 청소년 정책과 활동 분야에서 쌓아온 여러 가지 것들을 재임하는 동안에 우리 청소년들이 핵심역량을 갖춘 융합인재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맡겨준 소임을 다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에 여성가족부에서는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인 참여와 활동을 통해서 현재를 즐기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적인 지원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활동진흥원은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일 진흥원 운영과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는 진흥원 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해숙** 이광호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혜영** 안녕하십니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김혜영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전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기관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관은 가족지원 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한 가족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에 본 기관은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과 저출산 대비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해

왔으며 점차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설치·운영되고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소송과 추심 등을 통한 양육비이행 관련 종합서비스 제공으로 한부모가정 자녀의 양육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가족의 역량 강화로 다양한 가족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저희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해숙** 김혜영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혜정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변혜정**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변혜정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위원회 전해숙 위원장님과 정춘숙 간사님, 송희경 간사님, 김수민 간사님, 윤소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진흥원의 제20대 후반기 국회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진흥원은 젠더폭력 없는 사회를 구현하는 소통과 치유의 중추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실질적 성평등사회를 만들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투운동, 디지털성범죄 등 각종 폭력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가시화되면서 저희 진흥원은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다양한 주요 사업 이외에도 피해자 직접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올 3월부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자의 안정적 일자리 유지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컨설팅 과전단 그리고 피해자 맞춤형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웹하드, SNS를 통한 불법 유출·유포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통합 지원하며 효과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젠더폭력 방지와 여성인권에 대한 중요성과 신종폭력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다양하고 적극적 홍보활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전해숙 변혜정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에 합의한 대로 1차 질의는 5분으로 하고 첫 번째 질의가 모두 끝나면 2차 질의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에는 답변 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경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전해숙 송희경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송희경 위원 자료요청입니다. 자료요청 사항인데요.

지금 장관님 업무보고 중에 시범 운영 중인 새일센터지요, 거기서 하고 있는 사례관리형 경력이음 서비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운영현황이나 실적을 제가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요청 드리 고요.

그다음 오늘도 보고서나 말씀하신 것 보면 성평등과 양성평등을 상당히 작년보다는 더 많이 혼용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성평등에 더 가깝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2017년, 18년 양성평등위원회 또 양성평등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양성평등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이 3개 위원회의 실제 회의록과 참석자 현황 이것 좀 방으로 보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각 부처별로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이 다 있습니다. 전담 전문인력의 현황·변동내역 이렇게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전담 전문인력들을 교육하는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내용하고 교육이력을, 좀 세부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전해숙 존경하는 송희경 간사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숙 먼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원 위원 장관님, 차관님 그리고 배석 여성가족부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의 양성평등 관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고 거기에다 청소년과 가족업무까지 다 총괄하고 계신데 예산이 총 7000억 원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걸 잠깐 제가 단순비교만 해 봤는데 가까이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고양시 같은 경우는 2조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으로 과연 대한민국의 양성평등 정책과 집행 그리고 민간의 사업 보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늘리려는 노력을 정말 집중 전력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늘리도록 좀 노력하겠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사업이 사실 양성평등이 타 부처와의 협력이나 타 부처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해서 성평등을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든지 혹은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 그러니까 여성가족부는 가치나 담론의 창안자이자 확장자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은 예산으로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성가족부가 예산에 비해서 사업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표창원 위원 굉장히 다양하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그러면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전력을 다해서 뛰고 있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한쪽으로는 예산·인력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현재 있는 그 예산, 인력과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업무가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 각 부문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지수 여전히 부끄러운 수준이고요. 그리고 최근 거리에서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하면서 여성들이 나와서 목소리를 크게 터트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만연해 있는 성희롱 그리고 여성에 대한 혐오문화, 방충에서도 그냥 여과 없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학교에서는, 제가 지난 4박 5일간 대학생들하

고 정책입법캠프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선택한 과제 중에서 8개 조 중에 3개 조가 성교육 그리고 피임에 대한 지원, 이러한 정부의 노력 부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현장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 단위에서 지속적인 성적인 괴롭힘 내지는 무지에 의한 혐오에 시달리고 있고요. 아울러 성폭력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나 교육기관에서는 전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주지도 않을 뿐더러 보호막도 제공해 주지 않고 피해를 입었을 때 어디에 호소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란 말이지요.

이것이 결국은 여성가족부가 주로 타 부처와의 연계 협력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시다 보니 그냥 협조요청 내지는 공동 회의 이 정도로 그치게 될 경우 해당 부처에서는 실제 집행해 가기가 대단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이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우선 학교교육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은 정말 옳으신데요, 일단은 지금 교육계에서 이루어지는 양성평등교육의 콘텐츠도 문제가 많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7월 3일 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성평등교육을 공교육기관에서 필수로 넣으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성희롱·성폭력 근절 범정부 협의회가 있어서 차관급이 참여하고 제가 위원장이 돼서 하고 있는 여기에서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을 이행하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니까 체감속도가 얼마나 빠르냐의 문제는 있지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표창원 위원 더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민감한 이슈 중에 하나가 최근 그러한 우리 한국사회 양성평등의 낮은 수준 때문에 일부의 여성운동에서는 대단히 극단적으로 남성에 대한 공격의 형태로 이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과 앞으로 대책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를 들면 저희가 대학로에서의 시위와 관련해서 ‘불편한 용기’ 측과는 저희 여성가족부가 접촉을 하면서 대화를 계속 하면서 시정요구안을 받아서 저희가 성실히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것을 보내고 있는데요. 일부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표현은 그것이 인권침해적이라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창원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 위원 오늘 장관님과 관련 기관들의 보고를 잘 받고 여성가족부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는데 제가 그 일을 잘 많이 몰랐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왜 그렇게 몰랐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니까 부처의 영향력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까 표창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부처 영향력은 두 가지라고 보여지는데 하나는 예산이 많거나 아니면 부처의 지위가 하이얼라키(hierarchy)상 조금 위에 있든가 그래야 되는데 여성가족부는 제가 보니까 일은 각 부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서 부족한 것 또 성인지가 확산되어야 되는 이러한 일들에 관여를 하면서 지위는 사실은 수평적인 지위에 있거든요. 공공기관들 잘 아시겠지만 수평적인 지위에서 코디네이터를 컨트롤타워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여성가족부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집행은 다 부처에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부처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매년 이행 점검하시고 가져와서 그냥 여기에 보고하시는 게 여성가족부 일의 대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근본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이 정말 사회적으로 중요하면 지위나 어떤 위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근본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저는 이 일은 계속 반복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른 얘기들을 다 많이 할 수 없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가출청소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장관님, 가출청소년이 한 해에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가출청소년을 정확히 평가하기보다는 학교 밖 청소년은 35만 명입니다. 그래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고 가출청소년의 경우에 나오

는 경우에 상담을 해서 돌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정확한 통계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이 35만 명이라고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김현아 위원** 저희가 가출청소년으로 신고된 경찰청 데이터를 받아 보니까 한 2만 1000명 정도요? 그 정도 되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건 저희 주변의 지인들도 아이들이 가끔 집 나갔다 들어오고 막 하거든요.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게 그러면 도대체 나와서 밖에서 얼마나 있고 또 집에 돌아갔다가 다시 나오고 하는 그런 재가출률이라든가 이런 통계들이 다 잡히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다시 들어갔다가 재가출하고 하는 것에 대한 통계는 정확히 잡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의 기준이라는 게 뭐지요? 그 용어의 정의가 뭐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이탈한 청소년인데 사실은 이 통계 숫자도 대단히 불명확한 통계숫자인 게 현재 청소년의 인구에서 학교에 있는 청소년을 뺀 나머지 숫자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통계 자체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니까요. 여성가족부가 하셔야 되는 기본적인 일은 저는, 우리 사회적으로 정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 부분이 사실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커지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서 여성가족부한테 가출청소년 통계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경찰청에 직접 연락해서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성가족부가 일을 열심히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혀 경찰청의 협조를 못 받으시는 건지 좀 의아해서 오늘 여쭙보고 싶었고 지금 보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여성가족부에 계속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걸 누가 얘기해 주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성인지 교육과 관련해서 장관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양성평등진흥원 소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두 분 중에.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일단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을 준비하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성인지 교육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하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성인지 교육은 저는 모든 국민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아니요, 그건 장관님의 당위고요.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나윤경** 저희 지금 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 주된 대상이고요. 앞으로 이제 학교 제도권 안에 있는 대상자들을 의무교육으로 상정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제도권이라는 게 누구누구를 얘기하는 거지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나윤경** 초·중·고·대학생인데 이들은 저희 원에서 직접 교육받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저희 원에서 배출한 강사들이 만나는 인구입니다.

○**김현아 위원** 이 부분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로 성차별이나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관련된 논의가 있는데 그것의 가해자들이 대부분 나이가 좀 드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자라면서 그런 것들을 교육받지 못했고 사회적으로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성인지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선출직이라든가 아니면 민간기업에서도 승진을 하려면 성인지 교육을 받는 것을 인증시스템으로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아니면 곧 임원이 되는 분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이걸 받지 않으면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떻게 의무화될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의무화되면 여성가족부가 훨씬 더 하실 수 있는 일이 많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지자체 선출직, 이번에 지방선거 하면서도 부적절한 사람들이 많이 발각이 됐는데 아무것도 사후처리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여성가족부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위원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서 하는데요. 지금 양성평등진흥원에서 하는 중요한 것은 콘텐츠 개발을 하고 PPT 자료를 많이 만들고 해서 보고하고 맞춤형 성평등 교육 콘텐츠 만드는 것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더 확산될 수

있으면 훨씬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해숙 양성평등위원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나윤경 없습니다.

○위원장 전해숙 다음은 존경하는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위원 김수민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장관님께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아프리카TV나 유튜브로 영상 시청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이라도?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많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주로 어떤 영상 보세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들어가서 토크하는 이런 것 좀 보기는 했는데……

○김수민 위원 혹시 유튜브에 헌팅영상이라는 검색어를 쳐 보시거나 그와 유사한 영상물을 시청하신 적이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 헌팅영상이 뭐냐면요, 길거리 지나다니는 여성을 이렇게 붙잡아요. 붙잡아서 헌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당황을 하잖아요? 그 당황하는 모습을 여과 없이 영상으로 송출하고 시청자들이 채팅방에서 그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헌팅영상이라는 검색어 외에도 유튜브에 김치녀, 맘충 등을 검색하면 여성혐오 자체를 하나의 콘텐츠로 소비하는 행동을 볼 수 있고, 제가 사실 이 상임위장에서 제 입에 담기에도 굉장히 화나는 검색어들을 몇 개 검색을 하면요 성폭행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의 굉장히 선정적인 섬네일 그리고 해당 영상들이 여과 없이 올라오고 이것은 성인인증을 하지 않아도 아주 자유롭게 청소년들도 영상 시청이 가능해요.

지금 여가부에서 보니까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아실까요, 장관님께서?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의 범위.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각 지상파방송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유튜브에 접근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김수민 위원 지금 개인방송 인터넷 동영상은 포함되지 않는데 제가 보니까 2016년도에 유튜브가 포함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

는데, 2016년도에 유튜브가 포함됐는데 이때 모니터링 대상이 영상이 아니고 댓글만 모니터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비유를 하자면 썩은 음식을 그냥 놔두고 그 음식 주변에 꼬이는 파리만 제거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을 했는데 이 내용이 지금 여가부 내에서 계속 논의는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실행방안 자체가 나오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 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를 여쭙보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먼저는 아까 공영방송 얘기를 드렸고 1인 미디어 성평등 가이드라인이나 대중매체 모니터링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주로 만들어서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방송통신위원회랑 협력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랑 방심위랑 계속, 그 방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효과성을 높이면서 할 건가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사실 국회의 돌아가는 시스템 중에서 제일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타임라인이 없는 거예요. 항상 장관님 아니면 행정부처의 담당자들한테 얘기를 하면 어떤 문제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굉장히 충만하신데 언제까지라는 말씀을 한 번도 제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유튜브가 우리나라에서 이용시간 1위예요. 10대부터 50대까지 유튜브를 제일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이게 재작년만 해도 사실 이렇게 영향력이 별로 크지 않았는데 2년 사이에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보다 더 많은 이용시간으로 1위를 선점했는데 지금 사실은 제 나이는 이제 서른 살이지만 20대, 10대들은 거의 TV를 보지 않고 모바일 퍼스트 세대니까 모바일로 모든 영상을 시청하고 세상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가위 자체에서 지상파, 신문 등 그냥 기성세대들에게 용이한 매체들에 대해서만 어떤 계획을 마련하시고 앞으로 자라나는, 앞으로 세계관이 형성되는 10대·20대—30대까지는 모르겠지만—그들을 위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고 어떻게 이게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기술적으로는 사실 단

계별로 진행하고 있어서 불법촬영물, 소위 몰카와 관련해서는 지금 과기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연말까지 필터링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이나 사후에 음란물을 필터링해 낼 수 있는 기술을 올해 안에 개발하는 걸로 이미 시간 스케줄은 발표를 했는데요, 유튜브 부분은……

○김수민 위원 그런데 장관님, 제가 생각할 때는 필터링하는 기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조회수가 수익 창출로 이어지거든요, 그 콘텐츠를 만든 사람한테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아이디어가 제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 더 여가부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어쨌든 자극적인 여혐 방송이라든가 여혐 동영상 없어지지 않는 한 지금 우리 30대·40대·50대들이 이야기를 하는 유리천장들이 또 새로운 형태로 10대·20대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은 사실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위원님 얘기 들으니까 정말 힘든 과제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출로를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숙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지금 김수민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사실은 성범죄에 가장 노출되는 나이가 10대, 20대, 30대 이쪽이 제일 큼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시대를 넘어서신 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시대들이 하고 있는 사이트라든가 인터넷매체에 어떤 게 있는지조차 파악 못 하고 있으면 그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 업무보고하실 때 그 보장을 하셔서 10대·20대·30대가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와 그것이 지금 현재 인터넷에서 검열 없이 또 어떤 장벽 없이 바로 접할 수 있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각 부처 간에 연락하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위원장 전해숙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현 위원 강원 원주율의 송기현 위원입니다.

장관님, 강원 원주 해바라기센터 개원 준비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송기현 위원 제가 2년 전부터 원주지역, 강원도지역 여성단체 여러분들의 아주 굉장히 열렬한 갈망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개소하기 시작한 거니까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알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우리 사회에서 여성인권 사각지대다 하면 저는 크게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하나가 군대고요, 하나가 교도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종전에는 굉장히, 마초적인 문화가 굉장히 강했던 지대인데 특히 군대의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계속 고위간부에 의한 성폭력·성추행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송기현 위원 잠깐 보면 5월 8일 날은 수방사 헌병단 성희롱 사건이 있었고 6월 28일에는 해군 제독 준강간 사건이 보도가 됐고 그리고 7월 9일에는 육군사단장 여군 성추행 사건이 보도가 됐고 그다음에 올해 7월 21일에는 육군소장 여군 성추행 사건이 보도가 됐습니다.

장관님도 이런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송기현 위원 지금 여가부에서도 군내 여성 성폭력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통계나 이런 것을 수집하고 이런 게 있으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저희가 일단 이 부분은 처음부터 심각하다고 생각해서요 국방부와 여성가족부가 최근에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성고충전문상담관이나 양성평등담당관과 같이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좀 하고 있고요. 그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합의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소개한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나 여성인권진흥원 위탁교육을 우리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민관군 워크숍도 벌써 몇 차례 했고 민간 슈퍼바이저를 파견해서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역시 국방부랑 협의해서 전문인력을 그 안에 좀 충원을 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양성평등교육이나 바로 이런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등을 좀 더 자주 집중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제가 지난번에 군사법원에 관해서 얘기할 때 보니까 아직도 군대 내의 성폭력범죄에 관해서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일반 사회에서의, 일반 법원에서의 양형기준과 다른 게 있어 가지고 빨리 마련하라고 얘기했는데 여가부에서도 그런 것을 좀 체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송기현 위원** 그다음에 금방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권교육, 여성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요, 2015년도에 세 번을 해 가지고 참가 인원수가 31명이라고 되어 있고 2016년도에는 여섯 번을 해서 134명이라고 되어 있었고 2017년도에는 세 번을 해서 56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보니까 관련 인력 교육만을 위주로 하고 있어서 전체 교육 횟수나 참가자 수가 현저히 적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참여인원이 많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송기현 위원** 장관님, 그리고 지난 2017년도에 국가인위원회에서는 ‘교정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의견’ 이런 것을 낸 적이 있거든요. 인권위원회에서 여성 재소자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했는지 혹시 관심을 가져 보신 적이 있나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인권위원회에서 교정시설을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교도소 직원교육을 한다든가, 여성 수용자 처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직원교육을 한다든가 여성 수용자에 대한 관리지침 같은 것을 마련하도록 인권위원회에서 법무부에 권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도 현재 교도관 대상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인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교정시설에서는 여성 수용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여성 수용자들의 경우에 심리상담을 받은 경험은 거의 없고 생리 중 온수 샤워나 생리통으로 인한 고통을 경감할 수 있는 배려나 처우가 부족하다 이렇게 심층 면담조사에서 밝혀졌고요.

소년교도소 운영지침에 있어서는 소년 수용자를 위한 처우 관련 규정은 있는데 여성 수용자 처우를 위한 여성 수용자 관리지침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교도소의 경우에, 교정시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권이 제약될 수 있는 시설인 만큼 특별히 더 여성 재소자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시고 교도소에서 여성 재소자에 대해서 충분한 배려가 될 수 있는 지침을 여가부에서 만들어서 협조 실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숙** 송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군대가 많이 주둔하고 있는 강원도 원주의원님이라 질문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성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고요, 새롭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30분에 속개해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해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경 위원** 장관님 요즘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건의만 했다 하면 청원으로 장관님 내려가라 하니까 굉장히 힘드시겠습니다. 작년에 탁현민 행정관 해임 건의했다고 국민청원 받으셨고 또 얼마 전에 해화역 불법촬영 편파수사 시위에도 관심 있게 참석하셨다가 국민청원 받으셨는데 저는 여가부가, 오늘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부처에 사실상 협조나 건의나 이런 것들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장관님

께서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건의만 하는 장관님으로 오명 남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가족이나 나라의 구성이 굉장히 여성이 중심이 되고 또 여성이 실천하고 행동으로써 나라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일하고 또 판단하고 땀 흘리고 있는데 아직도 단순한 여성 문제로 이 부처를 생각한다는 것 그 인식부터 좀 바뀌야 됩니다.

진정한 양성평등 하셔야 됩니다, 장관님.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이 여성가족부라는 이름도 앞으로는 바뀌야 됩니다, 조만간. 앞의 여성을 빼고 가족부라고 바꾸든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니까 인구부로 바꾸든가 가족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부처로 거듭나기를 정말로 열망하는 바입니다.

관리하시는 업무 중에 시급한 것 하나 먼저 여쭙겠습니다.

성범죄 공무원 처벌 제가 작년에도 질문했었고 올해 3월에 업무보고 때도 장관님께 질문했지요. 기억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송희경 위원 그때 처벌이 솜방망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게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요, 관대공화국을 만들고 있어요. 나한테 유리한 것에는, 양성평등에는, 복지 같은 것 이런 것은 굉장히 평등하게 관대하게 하면서 내가 처벌을 받아야 될 성폭력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도 이런 솜방망이가 없습니다.

제가 17년 11월 28일, 18년 2월 27일 확인했습니다. 대대적인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대책 정부가 연달아 발표하셨고 또 지난번 제가 질의했을 때 성폭력 공무원이 42%가 아직도 공무원으로 계시요, 성폭력을 저질렀는데도. 맞지요, 장관님?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송희경 위원 그중에 15%가 견책이라는, 그러니까 솜방망이지요. 이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이런 징계기준이 모호하고 또 가해자한테 어떤 징계가 내려졌는지 알려 주지도 않아요. 인사혁신처에 적극 건의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슬라이드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하나 바꾸기는 했어요, 인사혁신처가. 제가 보니까 뭘 바꾸었느냐? 중간에 보면 성희롱했을 때—노란색 보시지요—살짝 변경했어요. 강등을 정

직으로 최소를 살짝 변경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송희경 위원 그다음에 성폭력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보세요. 견책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견책 정의를 한번 보시면 견책은요 어떠한 징계가 아닙니다. 당장 현실적으로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솜방망이 처리를 해도 되는 건지? 완전히 깃털이라고 할 수도 없고, 최소의 징계를 올려야 되는데…… 독일은 한번 보시면 독일은 아주 섬세하게 종합적인 고려를 해서 최소가 정직입니다, 최소가. 우리는 최소가 견책으로 아직 머물러 있어요.

이것 건의만 하시는 장관님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건의 장관님으로 오명 남으시면 안 되고요. 지금 정부의 한 관료로서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에 따끔하게 건의하시고 그다음에 국무회의에 가서서 공식적으로 발언해 주세요. 최소의 견책 이것은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어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수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디지털성범죄 제가 한번 짚어 볼게요. 화면 한번 보시면요, 차마 부끄러워서…… 제가 이것을 다 모자이크 처리를 할 수도 없습니다. SNS, 인스타그램 아시지요, 장관님?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송희경 위원 인스타그램이 지금 굉장히 많은 국민들, 청소년들이…… 네이버나 다음에서 옮겨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섹스타그램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무방비한 정도가 말로 할 수 없어요. 청소년 유해표시 의무, 19금 성인인증이 여가부에서 관리하는 것 맞지요?

그다음 화면 한번 보실게요.

저희가 방에서 직접 고발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직접 신고를 한번 해 봤어요, 인스타그램에.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어떻게 좀 처리해 주세요. 삭제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답이 어떻게 온 줄 아십니까? 답이 거절로 왔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나체 이미지 중에서도 성관계가 포함된 것, 완전 노출 그다음에 성기에 대한 확대 이런 아주 노출되지 않는 것은 우리 알 바 아니다, 우리 가이드라인 따라가라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이것에 지금 청소년들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거리에 나왔게 생겼어요, 이런 아이들이. 유튜브 보시면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유튜브는 더 심각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관님께서, 이게 물론 방통위나 방심위랑 같이 해야 된다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성인인증 유해물 관련해서 청소년 유해매체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직접 관리하셔야 돼요. 이 부분도 건의 장관님으로 그냥 남으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보니까 유해매체물 지정에 대한 고시, 매체물에 대한 성인인증표시 이것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를 여가부가 하게 돼 있거든요. 인스타그램 미국 회사입니다.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방심위와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국민들과 청소년들 다 지켜보실 텐데 대답을 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이것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우선 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공무원 성희롱 가해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성폭력범죄 수준으로 상향 완료를 해서 개정을 5월 30일에 했습니다.

○송희경 위원 했는데 그게 견책에 머물렀다고요. 최소가 견책이면 그것은 깃털도 안 되는 솜방망이지요. 최소 징계가 중요한 거지 최대 징계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차트에 보면 독일은 최소가, 최소의 징계가 정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소의 징계가 견책이에요. 견책은 정의 그대로 그냥 하나하나, 불이익을 약간 줄 뿐입니다. 그리고 45%의 성폭력을 했던, 성희롱을 했던 공무원들이 아직도 제자리에 있어요. 가장 공직기강이 있어야 되고 가장 투명하고 정직하고 또 누구보다도 양성평등에서 자유로워야 할, 교육을 시켜야 할 공무원들이 이러고 있다가요. 그것 관리하셔야 된다가요, 장관님이.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위원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 벌금형까지 당연퇴직토록 지금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법 개정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장점검을 좀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튜브 관련해서는요 청소년들이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현

재 저희가 한 조치는 서비스 제공자인 구글의 협조를 받아서요 지금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표시나 혹은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송희경 위원 장관님, 제가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체들이 해외 업체이기는 하지만 사업을 한국에서 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들이 자신의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으면 그냥 자신의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의 강화나 이런 것들을 방심위와 방통위와 해서 그걸 직접 실행을 하셔야 된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얘기입니다. 관리라는 의미가 그냥 관리가 아니고 가이드라인을 변경할 수 있을 정도로 감독행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백 장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처 간에 조율을 거쳐야 될 것이 있으면 그것을 위원들에게 입법활동이든 아니면 포럼을 통해서라도 이야기를 하셔서 좀 조율을 하십시오. 하셔서 이런 것은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지 외국 사이트는 우리가 손을 못 대고 한국 사이트만 어떻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 무방비로 노출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위원장 전해숙 다음은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송옥주입니다.

저는 여성 일자리와 관련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여성의 자립과 권익 신장을 위해서 중요한 정책인 여성 일자리 정책이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도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과 여성의 취업 지원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니까 연령대별 여성고용률에서 30대가 낮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

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 그런데요, 그중에서도 35~39세 여성들에 대한 취업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2017년 기준을 보니까 58.1%입니다. 요 나이대에 특히 그런 게 출산이라든지 여러 이유 때문에 그런 경력단절이 심한 건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경력단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다시 재취업하는 것이 좀 쉽지 않고 특히 30대 여성 중에 고학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취업에 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옥주 위원 아마 그런 현황을 파악해서 여가부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추진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올 1월의 여가부 업무보고 상황을 보니까 30대 여성고용률을 60.5%로 예측을 하고 달성을 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황과 이 부분이 목표달성이 가능한지 부분을 좀 간략하게 답변을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6월 기준으로 저희 여성고용률, 30대 여성고용률은 61.2%여서 원래 목표한 60.5%를 조금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새로일하기센터의 사업에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력이음 서비스입니다. 경력이음 서비스는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지금도 좀 하고 있지만—확대해서 30대 경력단절의 가능성이 있는 여성들에 대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취업 지원을 계속 강화하는 방안을 더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저도 새일센터에 대한 활동상이나 아니면 직접 센터장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로부터 여러 가지로 다양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게 일자리 마련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일자리 관련된 프로그램이 새일센터를 중심으로 되는데 그것 이외에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나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아닙니다. 새일센터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을 48개소에서 하고 있고요. 아마 며칠 전에 언론에도 발표됐는데 중소기업벤처부와 저희가 같이 협약을 맺어서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여성 창업인이나 중소기업인을 지원하는 데 저희 여성가족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창업하는 여성들에게는 100명에게 1억씩 창업자금을 도와준다고 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해서는 고부가가치 부분에 대한 직업훈련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런데 30대에 대해서 고부가가치 직업훈련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가부에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게 새일센터 사업운영실적 3개년 치입니다. 15년부터 17년까지를 보니까 이 센터를 많이 활용하신 분들이 30대보다는 40대, 50대 분들이 많고요. 특히 50세 이상이 15년에는 36.2%에서 16년에는 39.1%, 17년에는 42.6%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령에 대한 편견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사실은 좀 더 양질의 일자리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적절한 연령대가 사실은 맞지 않을까라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새일센터에 대해서 주로 활용하는 분들이 50세 이상인 부분이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한 업무영역을 보니까 직종도 사무회계, 보건의료, 이·미용, 숙박 등 주로 서비스 업무에 치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업무도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 업무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도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응이 있는지 부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좀 마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새일센터를 이용해서 취업을 하시는 여성 중에 장애인 비율이 있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이 장애인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평균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가 있고 그중에 여성 장애인이 있고 여성 장애인 중에서도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해서 여성이 81만 2352명에 달하는 것으로 장애인공단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했는데요. 이 중에 새일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하는 숫자를 보니까 2013년에는 548명이 취업을 하였고 2017년에는 504명이 취업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고 취약계층, 이런 장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배려를 하거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우선 고부가가치 부분

이 낮고, 사실은 새일센터가 40대, 50대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질 좋은 일자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대가 취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작년, 올해 사이에……

○송옥주 위원 특별하게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30대 고부가가치 사업과 관련돼서?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고부가가치 훈련이 지금 48개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48개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그런데 고부가가치 웹 콘텐츠 디자이너나 문화예술 콘텐츠, 3D 프린팅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간호사 부분은 요즘 굉장히 고부가가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진행하면서 새일센터, 새로일하기센터가 155개소지만 그것을 좀 특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나 이런 경우는 사실 고부가가치 위주로 주로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특화하면서 새일센터에 대한 혁신컨설팅단을 운영해서 연중 계속 돌리면서 보완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옥주 위원 장애인과 관련해 가지고……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은 정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현재 장애여성을 위한 특화된 직업교육훈련은 4개 과정을 하고 있으니까 대단히 적은데요, 전체적으로 장애인 부분은 복지부에서 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애여성들 자신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나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기관에서 취업을 받는 것이 훨씬 취업에 용이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업교육훈련 4개 과정을 해 보면서 어떻게 장애여성들에게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강화할 것인가 앞으로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유관기관이 있으면 같이 협조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목표를 많이 달성하고 좋은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해숙 송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셨는데요. 여가부는 전부 다른 데하고 연계를 하다 보니까 떠넘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가부가 커지려고 하면 여가부가 내 업무다 하고 주체적으로 하셔야 여가부가 커질 수 있습니다.

장애여성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복지부 거다라고 넘겨 버리면 앞으로 여가부에서 장애여성 관련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전혀 예산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하시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니까 도움이 된다 해서 예산을 달라 해야 부처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예산이나 이런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가부도 거기에 맞는 맞춤형 그걸 좀 해 주셔야 돼요, 장애 특성에 맞춰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라 위원 장관님, PPT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바로 보여 주세요.

이 광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강남역에 띄워진 광고인데요. 장관님 알고 계세요?

모르셨나 봅니다. 이것 언론보도에도 꽤 많이 났는데요.

강남역에 청년 스타트업이 직접 시민들의 후원을 모아서 크라우드펀딩으로 데이트폭력법 좀 제발 통과시켜 달라, 그래서 이걸 청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을 담은 광고를 실었어요. 오죽 답답했으면 데이트폭력법 마련 좀 제발 해 달라, 국회의원들이 일 좀 하라, 관심 좀 가져 달라, 이런 광고를 냈겠습니까?

제가 이 청년 스타트업 대표를 직접 만났었는데 데이트폭력법이 제류된 지가 6개월,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됐는데 전혀 이것과 관련해서 여가부의 노력도 없고 우리 국회 차원에서 다루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제가 정말 뼈아프게, 특히나 제가 데이트폭력법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이게 여가부 차원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도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이것과 관련한 질의를 꾸준히 해 왔어요. 2017년 8월에 제가 데이트폭력과 관련한 내용을 질의했었고 그때 당시에 1366 피해자 상담지원 매뉴얼을 시급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또 작년 10월 국감 때 제

가 법안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여가부 입장이 어떤지, 데이트폭력법에 관한 노력을 지금 부처 차원에서 하고 있는지 그때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여가부 장관께서 답변하시기를 스토킹 처벌법 제정위원회에서 이것과 관련한 내용도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그러면 스토킹 처벌법 관련 제정위원회에서 데이트폭력법을 다루느냐라고 했더니…… 사실상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폭력 범죄는 엄연히 다르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다르지요.

○신보라 위원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제정위원회에서는 스토킹 처벌과 관련해서만 주로 다루고 데이트폭력법은 주되게 다루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데이트폭력도 어쨌든 함께 다루겠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기다려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논의를 하시는지. 그래서 올해 2월 22일에 정부 대책을 발표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정말 실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결국 결론은 스토킹 처벌 범죄만 제정법으로 하시겠다는 거였고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하시겠다는 내용을 향후에 또 포함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결국 데이트폭력법은 정부 대책에서도 제가 봤지만 ‘특수성은 인정하지만 개별법으로 다루기는 사실상 힘들다’ 이렇게 판단정을 지어 놓으시고 삼진아웃제 얘기를 최근에 또 하셨어요.

넘겨 보시지요.

그런데 삼진아웃제 발표하고 나니까 난리가 났어요. 네티즌들 비롯해서 이런 여성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특히 최근에 부산 여성분의 피해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분개를 했는데 ‘세 번이나 당해야 처벌받는다’는 거냐? ‘1·2차에 살인이나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 살인뿐만이겠어요, 가까이 오고 하는 것만으로도 여성 피해자들은 경기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가부 입장에서 너무 경미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상담매뉴얼 지적한 게 작년 7월이었는데 2월 22일 대책에서 상담 지원 매뉴얼을 상반기에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문의를 했더니 지금 연구용역 중이라고, 그래서 9월까지 연구용역하면 또 언제 나오니까? 상담 지원 매뉴얼이 이렇게 1년이나 걸리는 일입니까?

정말 저는 기가 차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데이트폭력 문제가 경찰청에서 집계하는 결론만 놓고 보더라도 엄청난 숫자로 급증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피해여성들의 하소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겨우 여가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상담지원 매뉴얼이 1년 가까이 걸리는 일이라면 지금 여가부가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제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일단 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신보라 위원 이게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상담 매뉴얼 하나도 1년씩이나 걸리는 일이 됩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그런데 이것은 제가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 상담은 진행되고 있고, 상담 매뉴얼은 있지만 이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확장해서 하려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신보라 위원 데이트폭력법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부입법으로는 제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저희 여성가족부 입장은 데이트폭력의 심각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에서 저희가 노력을 안하는 것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트폭력, 이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을 법적으로 정의하기가 힘들다는 주장이 있어서 저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사위에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보라 위원 저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이 법을 좀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는데 지금 법안소위에서도 논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데 스토킹범죄뿐만이 아니라 데이트폭력법도 제정법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하반기에 이것과 관련한 공청회를 한번 열어서 이걸 가정폭력방지법안의 수정법안으로 논의하는 게 필요할지 제정법으로 필요할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위원님, 그래서 잠깐만 연결해서 얘기하면 지금 법안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폭력·가정폭력피해상담소 업무에 스토킹, 데이트폭력을 포함해서 긴급피난처에서 한 달까지 일시보호 서비스 제공을 포함해서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행하면서 법안 부분은 위원님들과 같이 협력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보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숙** 신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신보라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부분을, 아까 여기 댓글에서도 ‘세 번 가기 전에 맞아 죽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 성범죄들이 전부 데이트폭력에서 많이 유발되고 있기 때문에 유념해서 이 법을 제정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가정폭력법 안에 넣을 것인지 그것을 검토하셔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위원장님,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새로운 사건처리기준에서는 1회 범행일지라도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서 바로 구속기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처리기준이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숙** 지금 말씀하신 그 데이트폭력이라는 것은요 여성을 굉장히 비하하고 자기소유화하는 이런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이 부분 여성가족부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민봉 위원** 의사진행 관련돼서……

○**위원장 전해숙** 예, 유민봉 위원님.

○**유민봉 위원** 앞에 오늘 의사진행을 5분, 3분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딱 반이 지났는데 5분이 좀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3분은 더 짧겠지요. 그래서 5분을 아예 필요에 따라서는 1분, 2분을 추가하고 3분을 나는 안 쓰겠다 하면 그 옵션도 존중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전해숙** 그것은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간사님들께서 의논해 주시고 지금은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 발언을 존중해서 부탁하지 않아도 발언이 끊기지 않도록 1분을 그냥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서비스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은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위원** 지금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전쟁 중에 여성에 대한 폭력, 일본군위안부 문제인데요. 지금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 다섯 분의 피해자가 우리 곁을 떠났고 그다음에 생존 피해자 스물여덟 분이 2015년 한일합의 무효화와 동시에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기다리고 계세요. 지난 1월 9일 외교부 장관이 2015년 한일합의 검토TF 보고를 한 지 6개월이 지났고 그리고 일본 정부로부터 사죄와 배상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라는 마음으로 여러 피해자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얘기하시는 건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건강이 나빠지고 계시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우선적으로 이 식물재단인 화해·치유재단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지난번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실태를 보면 재단이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지요.

그런데 거기 사무처장 한 사람, 운영 지원하는 분 두 분, 피해자 지원하는 사람 2명 이렇게 되어 가지고 5명에 지금 월 1900만 원씩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자 지원 관련한 일이 하나도 없고요. 마찬가지로 사무실 운영하는 데에 무슨 그렇게 처장과 운영을 지원하는 사람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가부

통해서 그분들 출퇴근 기록 및 업무내역을 요청을 하니까 제출할 수 없대요. 그런데 도대체가 하는 일도 없는데 어떤 기준으로 임금을 받는지 알 수가 없고 지난 7월 24일 날 우리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을 한국 정부 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예비비를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기금에 편성을 하고 이후에 일본 정부와 합의를 통해서 향후 집행방법을 마련하겠다고 지금 이런 얘기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 편성된 이 103억을 어떻게 집행할 거냐, 이 10억 엔을, 이게 문제지요. 그리고 일본 정부의 10억 엔을 묶어 두고 이번 예비비로 화해·치유재단 운영경비를 지출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신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금년부터 시행에……

○정춘숙 위원 그렇지요.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하는 일 없는 식물재단의 인건비로 한 달에 1900만 원씩 계속 지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계속 기다려 왔기 때문에 이것은 장관님이 도대체 해결할 의지가 있는 거냐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사정은 대충 들었습니다만 지금 재단 정관 해산절차에 따라서, 민법 77조 1항 해산사유에는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이 불능할 경우에 해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목적에 따라서 일도 못 하고 기능도 중단되어 있는 재단은 하루빨리 해산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국민의 세금으로 이 운영비를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외교부나 혹은 외교적인 문제 이런 것을 얘기할 게 아니라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올해 안에 재단이 해산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장관님?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일단 10억 엔이 일본에게 반환을 목적으로 한 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재단에 있는 돈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산이자 국민의 세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지출되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거취 문제는 앞으로 논의를 하면서 결정을 할 텐데 일단 저희가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재단사무실 규모를 3분의 1로 축소하도록 하

는 조치는 이미 취했고요. 더불어서 앞으로도 이와 관련해서 일련의 조치를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사회 이사가 5명이 지금 사퇴한 상황이고 3명인데 3명으로는 재단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도 여러 방면에서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춘숙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지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지고 넘어가잖아요.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가부에서 빨리 8월 말까지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서 이것을 정리하실 것인지, 한 가지씩 정리가 돼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화해·치유재단 방문 점검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모든 국민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신보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성폭력과 관련된 법안 특히나 불법촬영 같은 경우 지금 보면 피해자 10명 중 9명이 여성이고 가해자 98%가 남성인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와 관련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피해자들이 지금 해화역 시위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2차 피해를 당하게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SBS와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2차 피해를 당하게 된 경우에는 피해자가 자기 피해 사실을 계속 얘기하면서 여가부에 혹은 경찰청에 계속적으로 다니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해야 돼요. 그런데 경찰청에서 사실은 방심위, 방통위에 넘겨서 해결해 달라고 한 게 1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바는 부처 간에 협력해서 컨트롤타워부터 마련해서 가지고 사이버범죄 처리하는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한 번에, 피해자가 여러 번 가지 않아도 되게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그러겠습니다.

○정춘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왜 피해자가 직접 다니게 합니까? 그 창구가 여가부에 없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사이버로, 이메일로도 신고할 수 있고요. 전화로도 할 수가 있고 본인이 찾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정춘숙 위원 여러 차례 계속 신고하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그리고 디지털성폭력 관련해서 발생하는 2차 피해는 우리 피해자신고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로로 처리를 하도록 하는데 피해자들한테 접근성을 좀 더 높여 가는 과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숙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간사님 건의로 저희들이 화해·치유재단을 방문하는 일정도 한번 잡겠고요. 간사 간 합의로 잡아 주시면 저희들이 하고, 위원장으로서 저는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가위 운영은 현장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현장에 가서 실재를 파악하는 그런 것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봉 위원 우선 여가부 장관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여가부의 지위에 대해서 늘 고민도 했고 왜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우리 장관님, SWOT분석 그러니까 조직 내부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환경요인으로서의 위협과 기회요인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보셨을 테고, 그러면 우리 여가부 내부의 장점과 단점을 자체 진단한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저는 여가부 내부의 장점은 다른 부처보다는 토론이 활발하고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면서 함께 토론해 가는 그런 분위기가 중요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가부는 다른 부처와 달리 새로운 가치를 접하고 거기에 따른 새로운 담론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가부가 가진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산의 부족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산 대비 사업이 너무 많아서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민봉 위원 그리고 인력도 260여 명 정도고.

저는 장점이 단순한 소통의 조직문화보다는 어

떤 남녀평등 의식에 대한 확고한 신념 이런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겠고 그렇게 무장이 안 되어 있다면 내부의 강점은 아니겠지요.

그러면 외부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기회요인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관심 그런 것이 상당히 기회요인이 될 테고요. 위협요인은 아직까지 우리 한국 사회의 남성 중심과 가부장적인 문화 그리고 부처에서 여성부를 생각하는 부정적, 말하자면 규제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인사혁신처나 기재부나 행안부나 이런 것처럼 각 부처에서 여성부가 없으면 더 편한 것이 많을 수 있는데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성평등교육이라든지 이런 등등 해서 간접한다 그것이 상당히 위협요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내부의 장점과 단점, 외부의 위협과 기회를 가지고 여성부가 뭔가 존재의 이유, 존재의 가치를 국민들께 그리고 부처 내에서 확실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고서를 보면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너무 사실 많은 부처의 프로그램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다 우리 여가부가 이런 사업 한다, 이런 사업 한다, 이런 일 한다 이런 식으로 정말 문어발식으로 뻗쳐 있어요.

이것을 선택과 집중으로 딱 추슬러 가지고 주도적인 사업을 통해서 존재가치를 확인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여가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그냥 나중에 장관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그러면 주도적인 사업이 뭐냐, 그리고 그걸 시스템적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첫째는 성인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인지 예산이 여기 들어와 있지 않은데 성인지 예산을 통해서 계속 각 부처의 예산을 평가함으로써 이 부처들의 성인식이 지금이 정도다 그러면 그걸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면 대통령께서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또 하나는 양성평등지수라든지 이런 것을 끊임 없이 발표함으로써, 심지어는 기업도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여성 친화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표함으로써 우리가 대학에서—저 국무위원하고

같은 대학에 있었습니다—그 대학 순위를 발표하면 각 대학들이 정말 그 평가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가부가 그런 존재이유와 부처와 국민들로부터 ‘여가부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하면서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산과 인력으로는 따르도록 할 수 있는 수단이 안 되니까 이런 평가지수라든지 제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점수를 공개하고 국무회의에서 발표하고 대통령께서 관심을 갖도록 하고 보고대회를 열고 이럼으로써 저는 여가부가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지렛대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여기 발표한 것, 이제 사업을 하시니까 포함을 시켰지만 4차 산업혁명, 여성…… 4차 산업혁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더 잘 알고 더 전문가입니다. 아무리 여성과 4차 산업혁명을 연결시켜도 여가부가 앞설 수 없습니다. 여성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은 당연히 중소기업부가 잘하고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더 중요한 톨도 가지고 있고 예산도 가지고 있고 전문가도 많습니다. 여기에서 그것을, 여가부에서 여성 일자리 창출이 더 쉽게,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사회적기업도 지금 말씀하셨지요? 사회적기업, 지금 행안부나 이런 쪽에서, 지자체에서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가부에서 이런저런 모든 프로그램에 관계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다 관여하기보다는 어떤 주도적인 사업을 정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재가치를 우선 확보한 다음에, 내부 역량을 기른 다음에 외연을 뻗쳐 나가는 식으로 여가부의 존재가치를 좀 더 국민과 국무위원과 공직사회 내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행정학 전공하신 유 위원님께서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셔서요, 선택과 집중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분야이고요.

사실 말씀드릴 것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성평등위원회를 설립한다 하는 게 있고 지금 현재 양성평등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에 있지만 1년에 두 번 모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성가족부의 정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고 이게 정확히 작동을 해야 되는데 현재의 양성평등위원회는 1년에 두 번만나는 정도여서 그것을 어떻게 강화하는가 하는 것은 저희의 큰 숙제입니다. 그게 양성평등위원회가 됐든 성평등위원회가 됐든 어쨌건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은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이 좀 저희를 도와주시기 바라구요.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의 존재감이 드러나고 정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이나 성별영향평가가 제대로 작동해야 됩니다. 특히 제가 여성가족부에 취임한 후에 느끼는 딜레마는 수도권과 지역 사이의 차이가 너무 큼니다. 수도권에서는 정책이 작동하는데 떨어진 지역에 가면 안 되는데 그걸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이나 성별영향평가가 각 지자체에서 정확히 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강화해 가는 것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수치가 국무회의나 언론에서 발표되면 그것은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그것은 저희가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4차 산업혁명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염려하는데요, 판교 테크노밸리 가 봐도요 여성의 숫자는 줄었습니다, 남성은 늘고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부분에서 여성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로여서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컨트롤타워가 작동을 하면 훨씬 나아질 수 있는 것이어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성평등 관점이 들어가기 위해서 일자리사업이나 사회적기업을 하지만 사실은 컨트롤타워를 강화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희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해숙 두 분 다 학교 강의를 하셔서 가지고 굉장히 길게 하시네요. 역시 국정기획을 하신 분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으니까요 장관님께서 좀 유념하셔서 그걸 발로 열심히 뛰어야 돼요, 귀찮을 정도로 여성가족부가. 지금 기획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귀찮을 정도로 자주 방문하고 뛰어야 됩니다. 나중에 장관님 구두 발바닥이 얼마나 닳았는지 제가 검사해 보겠습니다. 그 정도로 뛰어야 잘되지 국회의

될, 아무도 먹여 줄 사람 없어요. 국회의원들은요 부처가 열심히 했을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지 국회의원들이 뛰어서 부처를 살려 줄 수는 없어요. 부처가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위원장 전해숙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필 위원 장관님, 앞에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성 차별 철폐라는 이슈가 새로운 형태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5월에서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가 있었지요? 그리고 6만여 명의 여성들이 모여서 차별 철폐를 외쳤습니다. 이제는 워마드까지 등장하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집회를 이어 가는 것은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에 누적된 성차별에 대한 억울함이나 분노의 폭발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종필 위원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 성희롱,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이 모든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후에 장관, 청와대 행정관, 도지사, 대통령 측근이 보여준 각종 비하 발언이나 여성 폄하 저서, 성폭력 등이 이번 집회를 촉발시킨 또 하나의 원인 제공이라고 보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그간 축적된 그것들에 대한 분노가 함께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필 위원 그렇습니다.

이 대목에서 탁현민 행정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임명 초기부터 각계에서 탁현민 사퇴 촉구했고 지금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탁현민 행정관이 지난해 여성신문이 본인 명예훼손했다고 3000만 원 배상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했었고 최근 1심 판결에서 1000만 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행정관이자 대통령 최측근이 제기한 소송이 공정하게 진행되었을까 국민들은 의구심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인들은 언론에 제기되는 기사가 실릴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 여기에 정정보도 요

청이 선결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소송을 제기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탁현민 행정관은 그런 절차 없이 소송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결정이 청와대 동의 없이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도 좀 의문은 되고요. 게다가 1000만 원 승소에 불복하고 항소까지 한 상황입니다. 판결 결과에 대해서 여성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서도 냈고요.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이 판결 결과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공직에 있는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필 위원 장관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많은 여성들이 지금 통탄해 하고 있습니다. 소송 제기가 탁현민 책에 적힌 이 글 때문인데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차마 읽기도 민망합니다. 일반인 상식으로는 입에 담기 어려운 내용을 책으로 발간하고도 이 내용이 문제가 되자 지어낸 이야기라고 변명까지 합니다. 이 글을 보고 충격 받은 해외교포가 자신이 중학교 때 당한 성폭행의 아픈 기억을 더듬으면서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 이런 제목의 글을 기고하다 보니까 탁현민은 이 제목을 문제삼아 가지고 명예훼손 소송을 시작한 것이지요.

미성년자 성행위를 자랑삼아 본인 일처럼 쓴 것도 잘못인데 그런 글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다면 보통은 ‘죄송합니다. 그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이런 사과부터 하고 정정보도 요청을 해야 될 것인데 소송까지 갈 일인지, 그리고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이 처신을 조심해야 할 텐데 탁현민은 당당해도 너무 당당합니다. 소송하려면 청와대 행정관 탁현민이 아닌 개인 탁현민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탁현민은 즉각 파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시 파면해도 모자랄 탁현민 사표를 반려하며 임종석 실장은 첫눈 오면 놓아 주겠다? 정말 국민들을 우습게 봐도 너무 우습게 보는 오만의 극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신문입니다. 여가부와는 결코 무관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판결에 대해서 여가부는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았습니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여성단체들이 ‘현 시대 흐름을 담아내지 못한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고

위공직자가 강간을 판타지로, 여성에 대한 명백한 성폭력을 성문화로 이렇게 낭만화한 내용을 출판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적 업무 수행에도 지장이 안 되는 메시지'라며 이런 판결 내용을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여성 단체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가부 장관의 역할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장관님. 지금 장관님은 보이질 않고 여가부 입장도 보이지 않고 '탁현민보다 힘없는 여가부 장관'이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정말 가슴 아픕니다. 장관님은 국민들 목소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와대에 제대로 꼭 전달하셔야 합니다. 좀 걸기를 보여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알겠습니다.

○윤종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명 위원 이종명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기에도 국방위에 있었고 후반기에도 국방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첫 회의, 첫 업무보고 생소하기도 하고 제 적응능력을 좀 길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여가부의 업무라든가 회의 진행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긍정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사회적 문화를 창출한다든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데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장관님, 주위에 군대 갔다 온 전역자들이 있습니까?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있습니다.

○이종명 위원 제가 국방위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군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혹시 군대를 갔다 온 전역자들이 악몽을 많이 꾸는데 가장 심각한, 가장 최악의 악몽이 어떤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보통의 경우는 사실은 상급자에 의한 갑질 얘기도 많이 하고요. 가끔은 제가 대학에 있을 시절에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피해 그걸로 인한 트라우마 얘기도 좀 들었습

니다.

○이종명 위원 비슷한 얘기입니다. 군대 갔다 온 전역자들이 꾸는 악몽 가운데 가장 최악의 악몽은 군대를 다시 가는 겁니다. 군대를 다시 가는 그런 꿈인데, 사실 군대 2년 동안 가 가지고 병역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전역하는 병사들한테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전역할 때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군복무가 당연한 의무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정말 군에 갔다 온 전역자들에게 진지하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했는가, 뭘 해 줄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게, 이게 또한 건강한 가정을 위한 일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군 전역자들에게 군가산점을 주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의도 하고 했지만 위험이다 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여성과 장애인과 또 군에 갔다 오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가 평등권 이런 차원에서 위험이라고 판결을 했었는데 군가산점 제도는 사실 특혜나 차별적 제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병역 의무 수행의 자긍심을 심어 주고 또 더 나아가서는 병역기피 현상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저는 여가부를 포함해서 여성들도 좀 인식을 같이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가산점이 폐지된 이후에 지난 16년 동안 우리 젊은이들이 희생하고 헌신한 그 문제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 주위에서 전혀 무방비 또 무관심으로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군가산점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이나 직장 이런 민간 기업에서도 군에 갔다 온 기간을 경력으로 산정해서 호봉에 반영한다든가 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명 위원 장관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군가산점 대안으로 군복무기간을 호봉에 반영해주는 그런 것들이 지금 제시되고 시행도 되고 있는데, 그리고 장관님 말씀대로 여가부에서도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실을 보

면 공기업의 한 88.5% 정도만 그것을 경력으로 인정해 주고 그런데 그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 자체도 점점 갈수록 인정을 하지 않는 업체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기업이 이렇게 다 인정을 해 주지 않다 보니 민간 기업들도 훨씬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소홀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공기업에서는 의무적으로 그걸 해야 된다, 권장사항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제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관님께서 좋은 말씀도 하시고 장관님의 뜻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성가족부에서도 거기에 전혀 반대를 하지 않고 이런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군 전역자들이 남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가족의 일부이지 않습니까?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오빠가 될 수도 있고 동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 또 이게 청소년복지 문제하고도 연계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문제들이 진행이 될 때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성별 임금격차를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는 여성단체들의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설득을 하거나 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종명 위원 설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위원장 전해숙 이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명 위원님 정말 여기 잘 오셨어요.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된 것 같고요. 또 유민봉 위원님 오시니까 SWOT분석 다 해 주시고, 표창원 위원님 오시니까 여가부 위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남성 위원님들이 아주 정말 탁월하십니다. 아주 잘 오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현 위원 제가 처음에 할 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일종의 부탁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해화역시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자료 이런 것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해화역시위를 보면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성폭력에 대해서 특히나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죄의식 없이 그냥 공유할 수 있고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회적인 인식을 고쳐야 되는 것, 그것도 있지만 또 한쪽으로는 제도적으로 너무 촘촘하지 못했다, 여러 가지 허점이 있었다 하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예로, 예를 들어서 디지털성폭력 영상물 같은 것을 유통시켜서 범죄로 인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압수하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처음에 몰카를 찍어서 올린 사람은 형사처벌이 되지만 그걸 찍어서 올린 것을 다시 찍어서 재전송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어서 특히 표창원 위원님한테 법사위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이러한 제도적인 미비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과방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베나 워마드, 아까 존경하는 김수민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런 온라인사이트에 특정 집단, 여성이라든지 종교집단이라든지 이런 걸 비하하는 글들이 많아지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걸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을 하자 하는 것을 제가 작년부터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되고 있지 않은데요.

제가 보니까 이걸 유해매체로 지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방심위에 어제 제가 질의를 했더니 방심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현재는 모니터링해서 바로 삭제하거나 접속 차단하는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사후에 규제하는 것보다는 아예 사전에 이런 짓을 못 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선진국들은 증오범죄라는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집단에 대해서 증오심을 갖고 악의적인 글을 올리거나 말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증오범죄로 규정을 해서 아예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방통위에도 이런 제도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방심위원장도 그것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가위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금융권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성별을 평가 삼아서 채용을 차별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자료에 보니까 여가위가 이런 채용과정에서의 성차별적 관행을 막기 위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가이드라인으로 되는 일인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가부가 고용부문 성차별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가이드라인을 주셨지만 이번 달에 나온, 지난달이군요. 지난달에 나온 전국은행연합회가 제정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떤 채용단계별 성별 공개라든지 여가부나 지나 요구했던 사항이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가이드라인은 그냥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말로만 잘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어떤 집행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에 하나 연이어서, 이것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 특히나 남녀 성차별 없는 임금에 대한 운동을 여가부도 하고 있고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작업하고 계실 텐데 사실상 여가부가 일종의 성차별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실태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는데 다른 부처에서는 훨씬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가부 소속의 센터, 여가부 소속의 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은 단가 자체가 굉장히 낮게 돼 있고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고 있어서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에 대한 개선 방안이 들어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우선 첫 번째로 은행 관련해서 최근에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이것

과 관련해서는요 여성가족부와 일자리위원회가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냥 사전에 계속 협상도 해 보고 했는데 사실 올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은행연합회랑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성평등 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작업을 다음 단계로 하려고 그래서 올해는 그랬지만 다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 여성가족부의 종사자들이 복지부나 노동부에 비해서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 내에서도 센터 사이에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일괄조사를 해 봤더니 사회서비스 가이드라인에 저희가 67%에서 칠팔십%대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인상안을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것은 제가 내년 사업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업의 예산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용현 위원 올해는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제가 시간이 짧아서 간단하게 묻겠는데 주 52시간 근무제가 들어오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자료로 좀 주세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쉽터가 지금 2교대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주 52시간이 되면 3교대로 바뀌야 돼서 인원 충원도 내년 예산에 집어넣어서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경 위원 장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가부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양성평등이라는 용어와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혼재되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양성평등과 성평등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은 뭔지, 차이가 있다면 뭘 차이로 두고 이렇게 용어를 분별해서 쓰신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저희가 쓰고 있는 양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다 젠더 이퀄리티를 번역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올해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손을 볼 때도 맥락에 따라서 양성평등이 적절한 맥락이 있고 성평등이 적절한 맥락이 있어서 사실 섞어서 씁니다. 그래서 저희도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발표한 후에 통계를 내 봤더니 거의 절반 정도씩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젠더를 번역하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 용어를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병행해서 쓰고 있고 저희는 두 언어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희경 위원 그러나 우리 법률상에, 지금 여가부의 주요한 소관 법률 중의 하나인 양성평등 기본법은 엄연히 양성평등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는 학자적인 견지에서 젠더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한국어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의 문제를 여쭙는 것이 아니라 이 양성평등과 성평등 사이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양성평등이라고 할 때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평등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지향하는 부처의 목적사업들도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있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본다면 성평등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성소수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동성혼 등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법체계 내에서 이것을 합법화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이견과 갈등들을 내포하고 있고 여성가족부가 방점을 찍는 부분이 기존의 남녀 간의 성평등에서 과연 그러면 이쪽으로 여성가족부의 시계나 어떤 목적사업의 범주가 이동하거나 이쪽으로 확대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저희는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입장은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이것은 인간에 대한, 인권에 대한 차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여성가족부가 성소수자에 대한 입장이나 성소수자와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민적인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부처

가 먼저 선행해서 어떤 입장을 정하고 그 입장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지는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희경 위원 여성가족부가 여성의 문제나 또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주무를 하시기 때문에 국무회의나 이런 쪽을 통해서, 이런 기제를 통해서 입장을 개진하시는 당연한 의무가 있으신 겁니다, 권리도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 교육부에서 하반기에 성교육 표준안을 새롭게 개편하려고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전희경 위원 그리고 이 성교육 표준안에 있어서 주요쟁점 중의 하나가, 학부모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동성애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동성애 교육이 들어오느냐 이 문제를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부장관께서는 이 성교육 표준안에 대해서 국무회의 등을 통해서 입장 개진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제가 취임한 이후에 성교육 표준안을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기존의 성교육 표준안이 지나치게 생리학적인 문제, 피임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 양성평등의 관점이 함께 들어가는 표준안이 나와야 된다는 의미에서 문제……

○전희경 위원 그러니까 양성평등을 강조하시는 의미로 그렇게 의견개진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한테는 이게 성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 피임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양성평등의 관점이 좀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교육부와 논의 해 왔습니다.

○전희경 위원 진보를 표방하는 단체들이나 혹은 여성계의 일각에서 또 전교조를 위시해서 이 성교육 표준안에 우리 장관님과 같은 그런 생물학적인 어떤 성교육이 아니라 양성평등 차원에서 성교육 수준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그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동성애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성소수자의 인권이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해서 아이들의 발달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어떤 급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의혹과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정부의 부처는 국민의 어느 일정 부분의 분들의 의견만을 가지고 정부 부처가 업무를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저희는 받아서 그 의견을 조율하면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쳐서 정책을 하려고 합니다. 단,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런 의구심이나 오해는 하시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희경 위원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숙 전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차 질의를 마치고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원 위원 위원장님, 질의 전에 잠깐 의사 진행발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숙 예, 의사 진행발언하십시오.

○표창원 위원 앞서 존경하는 우리 신보라 위원님, 김수민 위원님, 신용현 위원님이 모두 테이트 폭력 및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입법과정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주실 수 없는지 좀 여쭙어보고 싶고요. 만약에 위원회 차원이 어렵다면 여가위 소속의 각 교섭단체 소속 위원들이 함께 공동토론회 개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전해숙 참 좋은 의견입니다. 우리 간사 간 합의를 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것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한번 논의해 주십시오. 제가 결정하는 것보다는 우리 간사님들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원 위원 질의시간 다시……

○위원장 전해숙 시간 다시 드리십시오.

○표창원 위원 지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이지요?

○위원장 전해숙 처음이라서 지금 헛갈리고 있습니다.

○표창원 위원 고맙습니다.

장관님, 역시 같은 맥락인데 우리 사회에서 지

금 여혐과 관련된 갈등도 심하고요 여기에 대한 논란도 많은데 우선 여성혐오, 여혐의 기원은 미소지니라는 라틴어 계열의 외래어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표창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은 여성에 대한 혐오, 여성에 대한 멸시, 반여성적인 편견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표창원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성혐오라고 이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전공자나 관심 있는 분을 제외하고는 ‘나는 그렇게 싫어하거나 혐오하는 것이 아닌데 왜 나보고 여혐이라고 그래?’라는 식의 오해가 빚어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불필요하게 양산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혐오라는 용어는 사실 법적 용어이거나 공식 용어로 채택된 적은 없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고개를 끄덕임)

○표창원 위원 일부 학자가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학계에서도 통일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표창원 위원 그런데 대중화가 너무 빨리 된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좀 조정 내지는 입장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저희가 여성혐오의 심각성도 알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성혐오가 성차별적인 언어를 통해서 되게 된다는 점도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아마, 언론에도 여러 차례 났는데 초등학교부터……

○표창원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현재 여성혐오라는 용어 자체를 불러서……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저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사회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데 이 문제를 좀 학계와 함께 정리해서 차별이라는 용어로 차라리 수렴을 하든지 아니면 이 세 가지의 차별, 모멸, 반여성적 편견 이것을 수렴하는 새로운 용어를 제시하시든지 그러한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건데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그러겠습니다.

○표창원 위원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평등, 남녀평등,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앞서도 지적이 나왔지만 특히 경찰·군, 특별하게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많이 남아 있는 직종은 마치 그 직종의 특성상 여성은 하기가 어렵다라는 편견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여성평등을 하라고 하니 쿼터,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여성들은 선발을 하되 그 직종에 맞는 여성이 아니라 여성으로서 그 직종 내에서 여전히 민원 서비스라든지 부드럽고 사회적인 차별적 시선의 여성 개념에 맞는 역할에만 한정시키고 그러다 보니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희롱이나 성범죄도 자꾸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이 현재 그런 일차원적이고 원시적인 쿼터제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그 각종의 직군들이 여성도 할 수 있다, 여성이 하기에 더 적합한 부분이 많다는 것들을 알려 주시고 확산시키고 그래서 그 해당된 부처들이 전혀 성인지적인 준비 없이 단지 여성을 부담스러운 자신들에게 할당된 존재로 인식하는 현 상황을 타개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여성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여성분들도 그냥 그 직종의 안정성만이 아니라 여성 중에 경찰에 맞는 여성, 여성 중에 군인 업무에, 군 업무에 맞는 여성, 여성 중에 그런 특별한 부분에 맞는 여성들이 좀 더 많이 선발되고 훈련되고 자기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다음 단계 역할을 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그렇습니다.

○표창원 위원 지금 어떻게 계획이 수립되고 진행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저희가 여성리더십 아카데미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작업을 부문별로 확대해 가면서 소수이지만 고위직에 올라가거나 한 여성들이 어떻게 자기 정체성과 역할을 찾아갈 건가……

○표창원 위원 해당 부처에도 적극적으로 그런 준비를 하도록 역할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알겠습니다.

○표창원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해숙 수고하셨습니다, 표창원 위원

님.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필 위원 장관님,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9월에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성별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성평등문화 확산TF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 차례 회의했고 그 결과로 올 2월에 10대 성평등 과제 발표했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윤종필 위원 크게 교육과 미디어로 나누었고 미디어 관련 과제 중에서 사업체와 이용자의 자율규제를 위해서 1인 미디어 및 성형·외모 관련 가이드라인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지 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아서 질의를 했더니 올 연말까지는 내겠다고 이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초등학생이 엄마 옷 갈아입는 모습 몰래 찍어 올리고 특정 성별을 혐오하는 콘텐츠가 계속 제작되고, 이런 무분별한 1인 미디어로 인한 피해 심각한 것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반드시 적절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인 미디어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도 상황은 심각합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스마트폰 게임순위 8위까지 올라갔던 게임인데요, 본 게임은 일부다처제로 설정해서 사용자가 미녀 배우자를 수집하고 배우자와 동침을 하면 여성 캐릭터가 옷을 벗는 등의 연출을 하고 있고요.

다음 PPT 보면 현재 네이버 월요 웹툰 조회수 2위인 웹툰인데요, 여자도 군대에 간다는 설정으로 군대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내용인데 정작 여군 캐릭터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런 게임이나 웹툰 즐기는 대상이 주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청소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종필 위원 바로 우리 청소년들이 주 소비층입니다.

여성신문은 해당 웹툰이 작품 설정과 무관하게 불필요한 노출 장면을 과도하게 등장시켰다고 여성을 성상품화한다는 이유로 2017년 스투피드(stupid)

콘텐츠로 선정했고 SNS에서 연계 중단 운동이 일어났었던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여가부에서는 게임이나 웹툰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모니터링은 하고 계시는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윤종필 위원 전체 게임 중에 성차별적인 게임이 얼마나 되는지, 웹툰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계획 세워 가지고 적시 조사를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임산업은 2015년 매출액 기준 10조 7000억 상당의 규모입니다. 청소년이 성차별적 미디어에 마구 노출되어 잘못된 성관념을 갖게 되지 않도록 방지책 시급합니다. 콘텐츠 제작자의 교육, 가이드라인 제작, 게임물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서 가지고 적극적인 모니터링 등 다양한 방안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윤종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해숙 윤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경 위원 장관님, 오늘 업무보고 보니까 수고가 굉장히 많으시고 또 아까 경력이음인가요? 그 제도 굉장히 좋습니다.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보다 경력이음이 더 좋은 용어이고 이것은 제가 보고자료 받아보고 더 많은 제안이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탁현민 행정관 해임에 대한 건의 재차 질문하고 저희들 작년에 엄청 질의 많이 했지 않습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고 또 얼마 전에 7월 9일 날 송영무 장관께서 ‘여성들은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논란 발언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여성가족부장관님이 어떤 반듯한 대답이나 의사를 표명하는가에 따라서 아마 여성가족부의 위치나 인지도나 존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조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 재차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실무적으로 여쭙볼 게 있는데 장관님 기업의 상조복지 중에 친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는 것과 외조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조가 달라요, 복지도 다르고, 슬라이드 보시면요 왼쪽

이 ‘스튜핏’이고 오른쪽이 ‘그웨잇’입니다. 우리 10대 기업들 다 조사를 해 보니까 반반입니다. 여성, 남성 그러니까 친가, 외가 똑같이 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 친가, 외가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 복지를 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관대하다고. 공무원들은 3일씩 똑같아요. 찾으실 건 다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들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들이 다른 복지도 보니까 외조부 대상은 아예 없는 데도 많아요. 이런 것을 여성가족부가 관리감독을 안 하고 그냥 둔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법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별조항 두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제가 개정하려고 하는데 장관님 적극 검토하셔서 가지고 이 부분 같이 하시자고요. 이걸 좋은 거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송희경 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부가 실제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가족친화인증제 있잖아요. 이것 KPI에 넣으십시오. 기업들이 가족친화인증기업 받아 놓고 명패만 달아 놓고 상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 그냥 KPI 주셔 가지고 나열시키시라고요. 이런 것도 안 하고 있는 기업이 무슨 가족친화인증기업입니까? 이런 것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바라구요.

그다음에 시급하게 또 체크할 게 저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실 텐데, 법안도 그렇고요. 두세아이 돌봄서비스 이것 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송희경 위원 저는 박수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이것 시범과제 끝나면 어떻게 될까? 이것 두세아이 초등학교 갈 때 아이들 서로 봐주는 거잖아요. 가장 힘들 때가 초등학교 보낼 때예요. 저도 아이 둘 키우면서 직장 다녔는데 그때마다 눈물 흘렸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하다 그만두셨는지, 한 달 하고 시범과제를 접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신청가족도 없고 아이돌보미도 지원자가 없고 더군다나 주말·휴일수당은 다 받아가면서 근무시간은 1시부터 7시까지, 달랑 5시고 그러면 누가 맡기겠습니까? 맡길 사람이 없는 이런 시범과제 하기 전에 수요자 대상으로 공청회나 아니면 시장

조사나 이런 것 하셨는지 궁금해요. 누구 담당자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탁상행정적으로 하시는 것을 자꾸 하시다 보니까, 예산도 없는데다가 이런 행정처리를 하시다 보니까 우리 여성가족부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장관님이 외롭고 고독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다 같이 도와드릴 마음이 많은데도, 국무회의 가서 가지고 몇몇하게 발언하실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왜 이것 한 달 하시고 그만두셨습니까? 이것 세금만 쓰셨잖아요, 한 달 동안.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가족정책관이 좀 답변해 주시지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이정심 가족정책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두세아이 돌봄서비스는 3월 한 달 동안 시범 운영으로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 하기 전에 저희가 현장의 의견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라든가 이용가정 민원 같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죄송합니다. 갑자기 나오게 돼서 그런데—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하지는 못했는데요. 이게 당초에 한 달 정도 시범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운영 상황을 봐 가지고 저희가 좀 더 확대하기로 했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희경 위원 진행 상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이정심 두세아이 돌봄 서비스는 한 달 동안 시범운영한 결과 이게 참 쉽지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제도적으로 좀 보완하겠습니다.

○송희경 위원 성과보고서가 있으면 보고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이정심 예.

○위원장 전해숙 송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라 위원 송희경 위원님이 가족친화인증기업 얘기를 하셨는데 이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제대

로 잘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국감에서도 인증기업 관리부실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그게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만 잠깐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 국감에서도 제가 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해고해서 기소까지 당한 적이 있는 기업이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 관리부실을 지적했었고요. 그때 당시 여가부 답변이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뿐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어요. 올해 7월 10일에 감사원 감사에서 똑같이 지적을 받으셨어요. 보니까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신고를 받아 가지고 접수가 돼서 처분을 받은 경우가 2015년에서 2017년까지 21건이었는데 여가부는 이 가운데 1건도 인증기업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장관님도 이 내용 검토하신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신보라 위원 보니까 가족친화인증제도가 10년이 됐고 지금 인증기업이 2800여 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10년 동안 인증이 취소된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그냥 방증하는 결과예요. 왜냐하면 고령법이랄지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이랄지 이런 것을 지키지 않은 기업들이 수두룩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인증취소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보고요.

이 인증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그 인증위원회도 1년에 한 번 딱 11월에만 열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11월에는 최종 인증여부를 심사하는 딱 그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인증여부만 심사를 하는 거지 중간중간에 그런 위법사항이 드러난 기업에 대해서 중간에 이렇게 재량으로 취소하는 경우가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하고 인증을 중간에 취소하는 규정도 뚜렷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것도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건 가족친화인증제도도 그 인증기업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모범적으로 가족친화정책을 펴느

나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원 지적을 이렇게 받으신 것만큼 이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노력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명확한 인증취소 기준을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위반과 관련한 사업장을 어쨌든 크로스체킹해서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 시스템 정비가 전혀 아직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고용노동부와 협업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여가부의 답변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와 어떤 협의를 했는지 그것에 관한 모든 일체의 자료가 있으면 저희 의원실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장관님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심사과정에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족친화인증기업이 현재 2802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취지는 기업들을 독려해서 가족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취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문제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인증심사위원회에 올리기보다는 인증심사에서 배제하는 그런 형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2개 사, 2017년에는 7개 사, 7개의 경우가 인증심사에서 배제된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더라도 가족친화인증위원회를 통해서 인증취소를 해야지요. 그래서 인증취소를 하는 것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하면 취소를 하고,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심사기준을 좀 더 정교하게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재심사에 들어갈 경우에 자신이 없는 기업들은 그냥 아예 심사를 신청 안 하는데요. 그것이 대부분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중소기업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보라 위원 모성보호 위반 사업장과의 시스템적인 연계 부분도 검토를 꼭 하셔서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위원장 전해숙 신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봉 위원 저출산 문제는 너무 난제인데요. 지난 5월에는 3만 명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출산이든 결혼이든 모두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이지만 그것을 우리 국가 전체로 통합해 보니까 이게 국가의 미래에 아주 재앙을 초래할 위험이다 해서 개인의 자유영역이지만 어쩔 수 없이 정책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선택을 좀 달리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출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정책을 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가부는 어떤 도구, 즉 재정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처에 관계되어 있지요, 특히 보건복지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여가부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것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출산율이 제일 높은 도시 두 곳이 세종시와 나주입니다. 그것은 일자리 안정이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성들의 경우에는 돌봄시설이 얼마나 사각지대 없이 잘 갈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정시퇴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여성들은 참 출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민봉 위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쉽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환경, 근무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효과가 있느냐는 것은…… 물론 세종시 말씀하지만 세종시는 정말 최고의 여건이지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안정된 직장과 휴가와 그래도 상대적으로 퇴근과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고 또 세대의 분포도 젊은 세대가 많고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여성의 삶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 거지요.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바꾸어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그 가치를 좀 가족 내지는 가정 중시 쪽으로 이렇게 결혼이 필요, 필요라기보다는 결혼의 의미 이런 쪽으로 뭔가가 좀 전환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에 여가부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국가가…… 프랑스나 스웨덴 같은 경우가 출산율

이 반등해서 거의 2.0에 이르고 있는데 그중의 한 이유는 휴직기간 동안에 월급을 기존의 직장에서 받던 것의 70%에서 80%를 주고 반등이 됐으니까 그런 인프라가 중요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화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생활 양립이나 혹은, 지금 저출산의 중요한 동기 하나는 삶의 질이 악화된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문화적인 캠페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병행해서 삶의 질의 악화를 극복하는 데에 중요한 일·생활 양립이나 이런 것들의 캠페인과 문화운동을 좀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유민봉 위원 저희들이 재정수단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을 거의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런 어떤 사회 분위기, 문화 이런 쪽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의 간사부처가 지금 보건복지부인데 오히려 이런 부분을 여가부 장관께서 맡아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고 여성의 입장에서 저출산 문제를 접근하는 그런 노력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혹시……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여가부 장관님께서도, 보건복지부장관 너무 바쁩니다. 우리 여가부 장관님께서 바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포괄적으로,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숙 유민봉 위원님, 여가부 장관님이 들으시면 아주 고무적인 제안을 해 주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명 위원 장관님, 건강가정을 위해서 동성혼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성애나 동성혼 문제는 같은 선상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동성혼 문제는 혼인 및 가족제도와 관련된, 혼인 및 가족제도의 어떤 의의와 가치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하는 차원에서 좀 다른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여가부에서 동성혼을 허용할 경우에 현재의 어떤 혼인 및 가족제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아직 검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종명 위원 검토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앞으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장관님께서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혼용 사용한 문제에 대해서, 아까 앞에서 존경하는 전희경 위원님이 질의도 하셨지만 이것을 혼용 사용하다 보니까 동성애를 비롯한 어떤 성소수자를 인정하는 게 아닌가 또 동성혼을 인정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조치라고 생각하는 많은 시민들의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헌법 제36조제1항에 보면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이 규정에 대해서 어떤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이 사회와 국가를 존속시키는 어떤 가족공동체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성애 문제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자칫 동성혼 허용 문제가 국가가 보장하는 우리의 가족제도를 깨뜨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장관님, 이 동성혼 허용 문제는 개인의 인권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어떤 가치질서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성혼이나 동성애 문제는 지금 유럽에서는 많이 논의되고 있고 현재 유엔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견해가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공동체 질서를 깨뜨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 여성가족부가 이것을 허용한다든가 이런 의견을 제기하거나 반대한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권침해 차원에서 생기는 차별에 한해서는 여성가족부가 반대를 하지만 그 외의 동성애나 동성

혼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드리겠습니다.

○**이종명 위원** 헌법에서 보장하는 이 혼인과 가족관계의 어떤 문제 이것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좀 많이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위원장 전해숙** 이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아마 장관님은 여권통문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좀 공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우리나라에서 1898년에 서울 북촌 양반 여성들 300명이 우리나라 여성 최초의 인권선언문으로 여성참정권, 경제활동권, 교육권을 주장한 그런 통문을 발표했지요. 그게 여러 신문에, 매일신문하고 또 그 당시 신문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것을 최근에 알았는데요. 이것은 보면 우리가 세계여성의 날을 지정했을 때 의미를 뒀던 미국 여성 노동자들 시위보다 10년이나 앞선 그런 권리선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여성들이 굉장히 좀 외면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좋은 것들은 발굴을 해서 우리 역사를 제대로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권통문의 날을 지정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장관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전부터 여성사박물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계속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부터라도 콘텐츠를 꼬박꼬박 잘 만들어 놓지 않으면 건물만 있다고 이런 여성사박물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콘텐츠를 수집하는 것 그다음에 좋은 위치에 여성사박물관이 들어갈 수 있는 것에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현재 다문화가족들의 결혼 비중이 한 7.7% 근처가 되고 그다음에 이혼한 가정 중에서는 한 9% 정도가 다문화가족들이 이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나면 그

이혼한 배우자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계속 남아 있으려면 재산이 얼마 이상 남아 있다는 걸 보증을 해야 된답니다. 그게 한 3000만 원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특히나 여성들이 들어와서 결혼했다가 이혼을 당하고 나면 3000만 원을 증명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추방을 당하는 케이스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것을 법무부랑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기를 키울 때 우리도 친정어머니 도움을 많이 받는데 이런 친정부모들을 외국에서 모시고 올 때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아기가 아마 5살 이하일 때까지만 되어 있나 봐요. 그리고 기간도 한정이 되어 있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현실에 맞게 풀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에 대한 답을 오늘 주셔도 좋고 아니면 제도에 대한 것들을 조사해서서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는 사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안 했는데, 며칠 전에 최영미 시인이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미투운동 폭로를 했는데 지금 거꾸로 10억 상당의 명예훼손죄로 배상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는 굉장히 큰 사인을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투운동으로 용기를 내서 고발했던 사람들에게 ‘거봐라. 고발하면 너네 큰 코 다친다’ 하는 이런 사인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개인적인, 법률적인 일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여가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미투운동에 대한 일종의 후속조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세 번째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최영미 시인하고는 저희가 이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미투 관련 사업에서 우리 신고센터 사업에 무료 법률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변호사회도, 7000명의 회원을 가진 변호사회가 저희랑 MOU를 맺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것과 관련해서, 이게 아주 전형적인 2차 피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용현 위원** 이게 사실은 그렇게 그냥 ‘하고

있다'가 아니라 그게 알려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론에서는 이것 해서 고소당했다는 것만 보도가 되고 그 뒤에 그쪽에서 백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그것은 최영미 씨 본인의 의견을 좀 듣고 저희가 홍보자료를 내보내거나 하는 작업은 하도록 하고요.

한부모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위해서 귀화조건 완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옳고요. 그래서 이혼한 경우에도 사실은 귀화조건이 2년, 귀화조건에서 2년…… 귀화조건이 있으면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지금 귀화조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친정부도 초청 시에는 5살 이하의 어린이가 있을 경우라고 하는 건 저희가 검토를 더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숙 신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경 위원 장관님, 저는 오늘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처음 상임위 질의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여성의 권익이 신장되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매 주말마다 해화역에서 그러한 집회들이 열리고 그리고 남녀평등, 양성평등의 문제가 얘기되어야 되는데 이게 아주 극단적인 성별의 갈등으로 인해서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고 그런 와중에 이제는 동성애 문제라든지 퀴어축제에 대한 찬반 문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시각과 첨예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고 그 속에서 여성가족부의 역할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여성가족부가 이 현상을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사회가 너무나 뜨겁게 들끓고 있는 것에 반해서 여성가족부가 지나치게 평온한 것이 아니냐라는 인식을 저는 상임위 여러 위원님들과 장관님과 질의 답변을 통해서 그런 우려를 해 봤습니다.

페미니즘이라는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익숙하고 누군가에는 낯선데 그것이 보통 '여성주의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이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남성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와 공격성을 발현하는 것이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로 오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전희경 위원 그런데 일부 연예인이나 심지어 학교 일선의 교사마저도 극단적인 남성에 대한 혐오,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주고 있으면서 '나는 페미니즘을 가르치는 교사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마치 자신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어떤 여성에 대한 혐오나 여성에 대한 공격인 것으로 환원을 해서 교묘하게 빠져 나가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성가족부가 당당하게 나서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가족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당당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해 주시고 사회의 중심을 잡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각별히 이후에, 질의 이후에 좀 신경을 쓰셔서 정말 이런 가짜가 진짜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혹은 일부 그룹에 의해서 여성의 전진이 오히려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장관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님 6월 달에 취임하셨는데 양성평등교육에서 강사들에게 교육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하시는 일이 없도록 그 교육과정을 통해서 좀 챙겨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해숙 답변하실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해화역 시위랑 보면서 어떤 극단적인 발언이나 이런 것보다는 주최 측이 6만 명을 주장하는 여성들이 왜 거리로 나와 있는가 하는 것에서는 여성의 일상생활에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자신들의 사생활이 끊임없이 침입당한다는 데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보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 이것을 해소해 주는 게 여성가족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불편한 용기' 측과 소통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분들이 저희한테 질문 7개 항목을 보냈을 때도 구체적으로 어

면 제도를 시간 스케줄상 언제까지 하겠느냐를 답해 줄 것을 요구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을 하면서 대다수의 여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해숙 아주 좋은 질문들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유념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송희경 위원님, 전희경 위원님, 신용현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성가족부와 소속 공공기관에서는 서면질의와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8월 6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서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백 장관을 비롯한 여성가족부와 공공기관 직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김수민	김정우	김현아	송기현
송옥주	송희경	신보라	신용현
유민봉	윤종필	이종명	전혜숙
전희경	정춘숙	표창원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입법심의관	차인순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차관	이숙진
기획조정실장	윤효식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이기순
여성정책국장	이건정
권익증진국장	최창행
대변인	김중열

정책기획관	최성지
가족정책관	이정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나윤경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이광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직무대리	이창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김혜영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변혜정

【보고사항】

○의안 회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8. 7. 23. 남인순·신창현·신경민·진선미·윤관석·김병기·오영훈·김상희·유은혜·소병훈·김철민 의원 발의)

7월 24일 회부됨